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5월 2021년

(통권 제9호) 발행일: 2021년 4월 29일(목) ●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이달의 포커스 뉴스

설문조사로 살펴본 2021년 아세안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P

베트남 노동법상 현지직원 퇴직금 지급은 필수일까? 37P

- 2021년 아세안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동향 · 프로젝트 동향 7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수출입은행 21
- <기업탐방> 아이커머 ..... 조규하 법인장 23
- <금융> 베트남 외환 주요 이슈 사항 ..... 도사무엘 부장 26
- <법률>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 김유호 변호사 29
- <상표등록 및 출원> ..... 송정숙 변호사 33
- <노무> 베트남 노동법상 현지직원 퇴직금 지급 최지웅 변호사 37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하남성> 40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6
- <웹툰> 수입규제 대응 및 지원 51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53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

설문조사로 살펴본 2021년 아세안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3.31(수)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

▸ISEAS'가 발표한 'The State of Southeast Asia : 2021 Survey Report' 보고서를 요약·분석하고, 관련 배경 및 시사점을 부연 설명▸흰색 박스하는 방식으로 작성

* ISEAS(Yusof Ishak Institute) : 아세안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을 연구하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

▸해당 보고서 설문조사는 아세안의 경제·사회 전문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설문 직업군 >

학회	정부 기관	시민 단체	금융 종사자	국제 기구	총계
45.4%	30.7%	9.3%	9.2%	5.3%	100%

< 설문 연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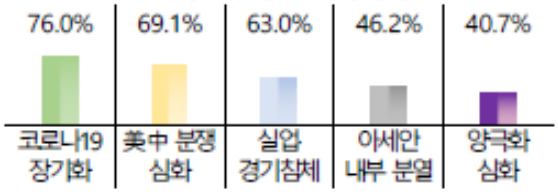
21세 이하	21~35세	36~45세	46~60세	60세 이상	총계
2.2%	34.9%	30.6%	23.0%	9.3%	100%

□ 아세안의 주요 극복 과제

○ 인니, 필리핀 등 코로나19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최대 극복 과제로 선택, '실업·경기침체'도 중요한 극복 과제로 지적

○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중인 베(81.1%), 필(76.1%), 싱(72.8%), 말련(71.2%) 등 국가들에서는 '美·中 분쟁 심화' 응답율도 높게 나타남

<아세안의 주요 극복과제>



▸(美·中 분쟁) 아세안에서 美·中 분쟁이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추세
▸(실업·경기침체)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 지원으로 실물경제는 여전히 적신호
▸(양극화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및 태국(반정부 시위), 미얀마(쿠데타) 사태 등 사회적 양극화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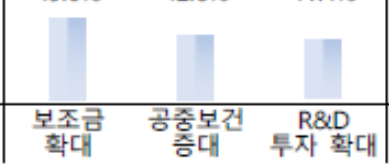
○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필리핀(53.7%), 인니(50.4%)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가 안정된 국가(베, 싱)의 경우 전염병 관련 R&D 투자확대 선호, 재확산 진행중인 국가(인니, 필)는 보조금 확대 및 공중보건 증대 선호

○ 최대 지원국은 중국, 일본, EU, 미국 순이며, 이어서 한국은 5위 기록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정부의 대응방안>



<대(對)아세안 최대 지원국>

▸(정부 정책) 실물 경제와 밀접한 산업인 관광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최대 지원국) 중국은 아세안 內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체생산 백신을 활용, 적극적 백신외교 추진 중

□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베(65.0%→85.1%), 필(61.2%→70.9%)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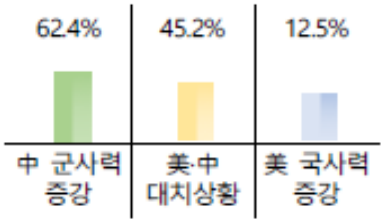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美·中 분쟁 파생 효과

○ (군사분쟁) 중국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비중은 **62.4%**이나, 미국은 **12.5%**에 불과, CLM(친중성향)에서조차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 높음

* 中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가별 우려 비중 :
△캄보디아(46.2%), △라오스(45.0%), △미얀마(60.9%)

<美·中 군사분쟁 관련 우려사항>



▸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미·중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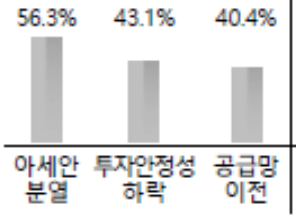
국가	국별 주요 성향
베트남	전통적인 반중국가, 경제 발전 위해 대미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해 위기의식 심화, 반중정서 팽배
싱가포르	경제적으로는 친중, 군사적으론 친미 성향이 강함
말레이시아	반중국가였으나, 국익우선 노선으로 선회함
태국	아세안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독립 외교 추구, 반중정서 확산
필리핀	과거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으나, 두테르테 정권 이후 친중 성향 증가
CLM	중국 일대일로 사업 최대 참여국가, 중국의 투자·지원에 대한 의존도 높음

○ (무역분쟁) 장기화될 경우, 아세안이 美·中 주도의 2개의 블록으로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으며, 베·인니 중심으로 '공급망 이전' 의견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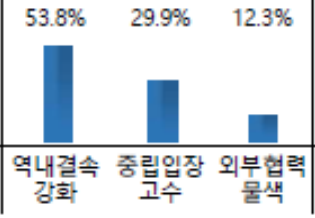
*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이전 답변 : △베트남(59.4%), △인도네시아(49.6%)

- 대(對)美 협력 선호 추세가 증가하고, 대응 방안으로는 '역내결속 강화' 지지, 제3국 협력 파트너로는 EU, 일본, 호주, 인도에 이어 한국은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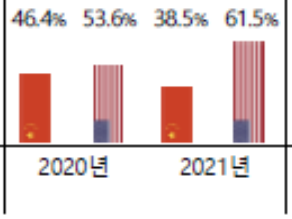
<무역분쟁 장기화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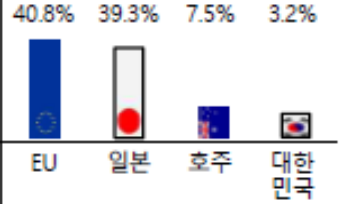
<필요한 대응방안>



<美中에 대한 선호도 변화>



<제3국 협력 파트너>



▸ (아세안 분열) 아세안 각국은 美·中 사이에서 중립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한 각국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아세안의 분열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美·中에 대한 선호도) 코로나19 책임론,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중국을 선호하는 아세안 국가 지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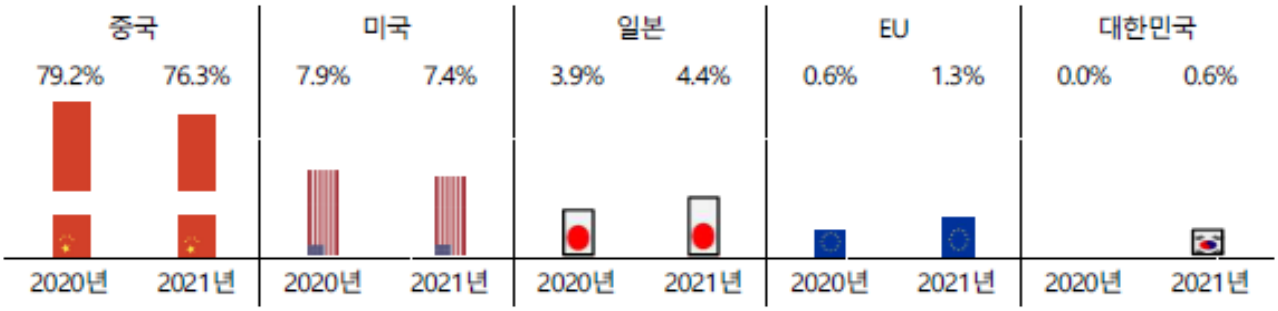
▸ (제3국 협력 파트너) '20.12.1일, EU와 아세안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키로 하고, EU-싱가포르, EU-베트남 FTA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개별국가와 EU 간 경제협력도 강화 추세

□ 주요국의 경제적 영향력

○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나 전년대비 '21년에는 소폭 감소추세(79.2%→76.3%)인 반면, 일본, EU, 한국의 영향력은 소폭 증가

- 특히, 베(0.6%), 인니(1.6%), 라오스(5.0%)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가 인식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경제적 영향력 변화>



- (중국) 교역(최대 교역국), 투자(일대일로) 등 아세안 內 최대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중이나, 일대일로 사업의 경제적 부작용, 코로나19 책임론,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짐
- (미국) 대(對)아세안 FDI 중 15.2%(245억 달러)를 점하는 최대 투자국으로 금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며, 美中 분쟁의 심화로 제조업 분야의 아세안 투자비중 또한 증가 추세
-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ODA를 통해 아세안 지역 내에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이며, '차이나+1'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를 적극 지원 중임
- (EU) '19년 기준, EU는 아세안의 3대 무역 파트너로 아세안 무역의 13% 차지, '20.7월에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8억 유로(9.5억 달러 상당) 규모의 'Team Europe' 패키지 지원

□ 전망 및 시사점

○ '21년 아세안은 코로나19 여파와 美·中간 아세안 內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나, 역내 반중정서로 인한 회원국간 내부분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함

○ 美·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아세안의 움직임은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및 아세안 內 입지 제고를 위한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음

- 제 3국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인지도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우리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짐

- 다만, 현재 아세안이 겪고 있는 각종 위기상황(코로나19 재확산, 반정부 시위 등)을 감안, 각국의 사회·경제 동향에 대해 지속적 예의주시 필요

참고 설문조사 응답 자료

□ 아세안의 주요 극복 과제

< 아세안의 주요 극복과제(%)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코로나19 장기화	**76.0**	77.7	84.5	63.3	71.8	64.9	80.6
美·中 분쟁 심화	**69.1**	81.1	62.0	72.8	59.0	53.4	76.1
실업·경기침체	**63.0**	54.3	67.4	55.1	70.1	55.0	65.7
아세안 내부 분열	**46.2**	66.9	26.4	60.8	44.4	52.7	34.3
양극화 심화	**40.7**	21.7	39.5	51.9	44.4	56.5	28.4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긍정	**60.7**	96.6	24.1	92.4	54.7	44.3	25.4
중립	**15.1**	2.3	25.6	5.7	17.1	19.1	20.9
부정	**24.2**	1.1	50.4	1.9	28.3	36.7	53.7

< 필요한 정부의 대응방안(%)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보조금 확대	**49.0**	0.0	36.9	0.0	51.5	77.1	33.3
공중보건 증대	**42.6**	0.0	43.1	0.0	69.7	43.8	30.6
R&D·투자 확대	**41.4**	100	40.0	100	33.3	52.1	58.3

< 대(對)아세안 최대 지원국(%)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44.2**	13.7	45.0	55.1	64.1	65.6	20.9
일본	**18.2**	29.1	9.3	11.4	10.3	9.2	11.9
EU	**10.3**	11.4	20.2	7.0	6.8	7.6	16.4
미국	**9.6**	29.7	7.0	4.4	5.1	3.8	16.4
대한민국	**5.4**	5.7	6.2	5.7	3.4	6.1	10.4

□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심각	2020년	**52.7**	61.2	71.0	49.6	45.4	54.2	65.0	45.5	60.9	57.7
	2021년	**53.7**	70.9	58.9	52.5	47.0	48.9	85.1	38.5	40.0	50.0
보통	2020년	**44.1**	38.2	25.7	48.6	50.9	44.8	33.6	47.1	26.1	42.3
	2021년	**42.1**	24.0	37.2	44.9	49.6	47.3	7.5	57.1	50.0	50.0

□ 美·中 분쟁 파생 효과

< 美·中 군사분쟁 관련 우려사항(%)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의 군사력 증강	**62.4**	76.0	57.4	65.8	48.7	66.4	71.6
美·中 대치상황	**45.2**	16.6	47.3	59.5	45.3	50.4	16.4
미국의 군사력 증강	**12.5**	4.6	10.1	6.3	11.1	12.2	4.5

<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의 영향(%)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아세안 분열	**56.3**	58.3	51.9	50.6	56.4	58.0	56.7
투자안정성 하락	**43.1**	33.1	35.7	39.2	37.6	49.6	49.3
공급망 이전	**40.4**	59.4	49.6	31.6	41.0	24.4	43.3

< 美·中 무역분쟁 관련 필요한 대응방안(%)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역내결속 강화	**53.8**	71.4	60.5	51.9	51.3	49.6	62.7
중립입장 고수	**29.9**	19.4	27.9	31.6	35.9	32.1	17.9
외부협력 물색	**12.3**	8.0	8.5	14.6	4.3	13.7	17.9

< 美·中에 대한 선호도 변화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선호	2020년	**46.4**	14.5	52.0	38.7	60.7	52.1	17.5	61.5	73.9	57.7
	2021년	**38.5**	16.0	35.7	34.2	47.0	43.5	13.4	51.9	80.0	46.2
미국 선호	2020년	**53.6**	85.5	48.0	61.3	39.3	47.9	82.5	38.5	26.1	42.3
	2021년	**61.5**	84.0	64.3	65.8	53.0	56.5	86.6	48.1	20.0	53.8

< 美·中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합한 제3국 파트너(%)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EU	**40.8**	40.6	55.8	44.9	43.6	47.3	43.3
일본	**39.3**	44.6	23.3	38.0	30.8	35.1	35.8
호주	**7.5**	5.7	7.8	6.3	7.7	6.1	13.4
인도	**6.6**	6.9	3.1	5.1	6.8	8.4	3.0
대한민국	**3.2**	0.0	7.8	3.8	5.1	2.3	4.5

□ 주요국의 경제적 영향력

<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경제적 영향력 변화(%) >

구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2020년	**79.2**	76.3	77.0	81.1	78.5	86.5	61.3	84.9	78.3	88.5
	2021년	**76.3**	65.7	70.5	83.5	76.9	84.7	59.7	83.3	87.5	80.8
미국	2020년	**7.9**	11.8	7.4	10.8	6.7	5.2	16.1	4.1	4.3	0.0
	2021년	**7.4**	13.7	6.2	7.0	6.8	5.3	10.4	4.5	5.0	3.8
일본	2020년	**3.9**	2.6	4.8	2.7	2.5	3.1	8.8	5.3	0.0	0.0
	2021년	**4.4**	3.4	6.2	2.5	3.4	3.8	13.4	5.1	0.0	0.0
EU	2020년	**0.6**	0.7	0.0	0.4	0.6	1.0	0.0	0.8	0.0	3.8
	2021년	**1.3**	0.0	2.3	0.6	2.6	0.8	1.5	1.3	0.0	7.7
대한민국	2020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21년	**0.6**	0.6	1.6	0.0	0.0	0.0	0.0	0.0	5.0	0.0

베트남 2021-2025 우선투자대상 8개 경제구역

- 우선 투자대상경제구역 9개가 2016~2020 전체 26개 경제구역 무역의 89% 차지
- 몽까이경제구역, 동당-랑선·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의 교역활동 가장 두드러져

경제구역(Economic Zones)의 정의

경제구역은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포함해 일컫는 용어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보유 자원 여부에 따라 산업·상업·위락·농림수산업·군사보호 등의 기능구역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구역은 큰 틀에서 베트남 정부가 해안 및 국경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 및 유치하기 위한 구역이다. 2020년 기준 베트남에는 총 26개의 경제구역이 있으며, 정부는 이 중에서 교역규모가 큰 경제구역 일부를 우선 투 자대상 경제구역으로 승인하고 예산을 집중 할당하고 있다.

2019년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 9개, 전체 26개 경제구역 수출입규모의 88.9% 차지

총리는 지난 2015년 12월,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 총 9개의 경제구역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승인했으며, 경제구역 총 투자 지원자본의 70%를 우선 투자대상 경제 구역에 집중적으로 할당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9개의 경제구역은 몽까이 경제구역, 짜로 국경경제구역,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까오방 국경경제구역, 꺼우쩌 국경경제구역, 라오바오 경제상업특구, 목바이 국경경제구역, 그리고 안장 국경경제구역이다. 이 중 해안 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몽까이 경제구역과 상업 특구로 지정된 라오바오 경제상업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는 모두 국경경제구역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9개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의 교역 규모는 26개 전체 경제 구역 교역 규모의 88.9%에 해당하는 257억 달러로,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구역을 통한 수·출입 활동은 9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 대상 8개의 우선투자대상 경제구역

베트남 총리는 2020년 12월 18일 발행한 승인서 (1804/TTg-CN)를 통해 기획투자부가 정부에 제안한 2021 ~ 2025 사회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8개의 우선 투자 대상 경제구역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016 ~ 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과 비교해 2021 ~ 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의 변동사항은 기존 꽝닌(Quang Ninh)성의 짜로 국경경제구역(Cha Lo Economic Zone)을 제외하고 8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정부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대한 예산이 2016년 대비 2018년 67% 이상 감소함에 따라 교역 규모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투자 대상 경제구역에 사용할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배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경제구역은 접경 국가와 수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투자를 염두에 두는 기업이 경제구역 인근 산업 공단에 생산기지를 마련한다면 산업공단 관련 혜택 및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제구역별로 해안 및 내륙 관문에서 산업단지까지의 거리와 성·시 별로 산업단지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검토한다면 더 유리한 입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1일 발행된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결정서(01/NQ-CP)의 별첨 4부, 35항에 2021년 3분기 중에 2018년 5월 22일 발행됐던 '산업 및 경제구역관리에 대한 시행령(82/2018/ND-CP)'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구역사업은 투자기업을 유치해 베트남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으나 '산업·경제구역 개발계획'은 해당 성·시의 개발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3분기 발표할 '산업 및 경제구역관리에 대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어떤 조항이 추가·삭제 및 변경되며 구체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에 불어오는 신재생에너지 바람

- 204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2%로 확대
- 태양광, 풍력발전에 집중적인 투자 진행: 2030년까지 발전설비 각각 18~19GW 설립
- 기자재, 부품 수요 증가에 맞춘 시장공략 가능

베트남의 전력 생산 현황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7%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함께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낮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 20년동안 베트남의 전력생산 평균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의 약 두 배인 12~13%에 도달했다.

베트남의 에너지 개발계획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에너지 개발계획과 주요 인센티브를 들여다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전력 공급은 필수적이며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2007년 베트남 정부는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2050년 전망을 포함한 베트남 국가에너지개발계획(Vietnam 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to 2020 with an Outlook to 2050)'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에너지 개발정책을 다듬어 가기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Research Center for Sustainable Growth and Energy에서 근무하고 있는 Ha Dang Son 실장은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선두로 달리고 있으며 전체 발전설비 대비 태양광 발전설비 비중은 이미 독일을 넘어섰다고 얘기했다. 현재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설비(현재 기준 6GW로 추산) 대부분은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Ninh Thuan과 Binh Thuan 지역에 약 40%의 프로젝트가 집중 개발되고 있다.

풍력발전 현황

3,200km 이상의 긴 해안과 연평균 8~9m/s의 바람은 풍력발전에 있어 베트남의 최대 강점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소는 총 9군데이며 발전설비 용량이 총 304.6MW에 달한다. Bac Lieu에 100MW급 최대규모의 발전단지가 있으며, Phu Quy 지방에도 50MW급 발전소가 2개 운영되고 있다.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 속도도 점점 빨라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진출도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그 전망은 더욱 밝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2030 다낭시 마스터플랜 총리 승인 행사 참관기

-2030년까지 관광, 하이테크, 해양경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개발 드라이브
-기존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를 넘어 '스마트, 금융 도시'로 발돋움

지난 3월 29일 다낭시청사에서는 2030 다낭시 마스터플랜 조정안에 대한 총리 승인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조정된 2030년 다낭시 마스터플랜을 국내외 기관들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또한, 이날은 1975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으로부터 다낭시를 수복한지 4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여 다낭시로서는 과거의 영광을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10년 계획의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행사였다.

2030 다낭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① : 산업 육성 계획

다낭시의 핵심 산업인 서비스 부문은 관광, 물류, 금융,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고급 리조트 개발, MICE, 골프관광, 생태관광, 카지노 등 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지향하고 기존의 동북아 중심의 관광객 외에도 러시아, 중동, 동유럽 지역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다낭시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의료시설을 건설, 베트남 내 4대 의료시설로 육성하여 의료 관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30 다낭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② : 도시 개발 계획

도시 개발의 방향을 기존의 단일 중심(Mono-Centrism)에서 다극 개발(Muti-Polar Development)로 변경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다낭을 크게 ▲ 해안지역(Waterfront area), ▲ 녹지지역(Green Core area), ▲ 산지지역(Hillside area), ▲ 생태지역(Eco-region) 등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하이테크파크와 항만, 하이테크 농업지역과 창조혁신 지구로 이어지는 2개의 경제벨트를 형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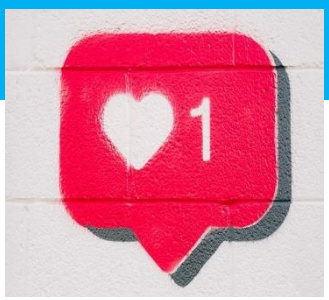
2030 다낭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③ : 공공 인프라

현재 화물 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는 띠엔 사(Tien Sa) 항구를 대체할 리엔 찌우(Lien Chieu) 항구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며, 기존의 띠엔 사(Tien Sa) 항은 크루즈 전용 관광항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리엔 찌우(Lien Chieu) 항 개발 프로젝트는 다낭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완공 시 베트남의 3대 항구(하이퐁, 붕따우, 다낭)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다낭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④ : 금융 서비스

이날 행사에서는 다낭시와 IPPG(Imex Pan Pacific Group) 간 「다낭시 지역 금융 허브화 연구와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IPPG는 베트남에 각종 명품, 패션 브랜드와 식품 프랜차이즈를 들여온 기업으로 주요 대도시의 쇼핑몰과 항공 인프라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다. IPPG에 따르면 다낭시가 국제공항과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선짜(Son Tra) 지역, 보 반 끼엣(Vo Van Kiet) 거리에 구상하고 있는 금융센터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낭시에 총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6개월 후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프로젝트 플랜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에는 왕홍이 살지 않는다

- 베트남 광고주, '가격의 합리성과 파급 효율성' 찾아 온라인 채널 선호
- 인플루언서 개인에게 편승한 소셜 커머스는 즉각적인 판매 효과 미미

베트남, 6800만 인터넷 인구가 확장한 디지털 마케팅 공간

Google은 2020년 베트남의 인터넷 경제가 1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연평균 두자리 수 성장이 지속돼 2025년에는 그 규모가 5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했다.(자료: Google, Temasek, Bain 공동 보고서 e-Conomy SEA 2020) 추산대로라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3번째로 인터넷 경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인터넷 경제가 이처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주요 배경은 ① 현지 인터넷 보급 확대, ② 인터넷 인구 성장, ③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소비자 행태 변화 등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광고 공간 찾는 베트남 기업, 시작은 Facebook부터

유동적인 투자 비용과 적시성을 강점으로, 베트남에서는 온라인 광고 채널이 더욱 조명받는 추세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예산을 폭 넓게 변동할 수 있는 반면, 오프라인 광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이 고정돼 있고 광고를 실행하기 까지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왕홍이 사는 곳은 베트남이 아닌 중국

베트남에서 인플루언서 또는 소상공인 개인의 홍보·판매 목적 라이브 스트리밍은 2015년 전후 시점부터 차근히 확대돼 왔다.(현재 베트남 내 라이브 스트리밍은 Facebook이 가장 활발하다.) 더불어 2020년 팬데믹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장려되자 Lazada, Shopee 등 현지 대형 오픈마켓 기업들의 라이브 스트리밍(=라이브 커머스) 활동이 급류를 탔다. 현지 인플루언서 고용 비용은 수백만 원에까지 이르지만, 인플루언서 개인의 인지도에만 의존한 1회성 판매 광고의 효율성은 장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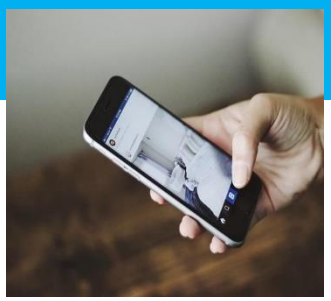
한국은 빙그레우스, 베트남에서는 마린보이

한국에서 Binggrae가 Instagram을 통한 캐릭터 마케팅으로 MZ세대 소비자에게 브랜드 네임을 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Orion은 Youtube에 자체 만화영화와 웹드라마 등을 게재해 소비자와 지속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사점

베트남에서 뒷광고는 큰 논란거리가 아니다. 한국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에 표시광고법을 도입한 것과 달리, 현재 베트남에서는 Youtube 같은 소셜 미디어에 이러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흥미롭고 그 내용이 현지 정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베트남 Youtube 시청자들은 비교적 관대하게 광고를 용인해주기도 한다. 대신, 관건은 '식상함에서의 탈피'이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모바일 머니' 시범 도입

- 은행계좌 없어도 스마트폰은 보유한 현지 사정 고려해 '모바일 머니' 기획
- 도시과 지방 간 전자결제 발전 양극화, 모바일 머니로 거리 좁히기 시도

베트남, 현금 없는 사회 촉진 위해 모바일 머니 2년 동안 시범 도입

2021년 3월 9일 모바일 머니 사업을 승인하는 베트남 총리 결의안 Decision 316/QD-TTg가 발효됐다. 이는 무현금 결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우선 2년 동안 해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모바일 머니는 휴대폰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이므로, 현지 정보통신부는 사업 자격을 충족한 기업들(현지 대형 통신사)이 모바일 머니 사업에 참여토록 촉구에 나섰다.

베트남 모바일 머니, 기존 전자지갑 서비스와 다른 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전자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머니는 전자지갑 솔루션과 같은 개념으로 혼동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머니는 은행계좌가 없어도 계정을 만들 수 있고 휴대폰이라는 실물이 요구되는 등 몇 가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시사점

모바일 머니가 고안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방 지역의 전자결제 사용률 제고로 분석된다. 베트남 내 만 15세 이상 인구의 은행계좌 소유 비중은 2018년 중순 60%까지 대폭 성장했지만, 지방보다 도시에서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아 전자결제 발전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자료: 세계은행, Statista) 한편,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2010년 이래 저가 모델이 대량 유입되어 지역에 큰 편차 없이 보급돼왔다. 실제로 현지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6600만 명(전체 인구 중 약 68%)으로 보급률이 높은 수준이고 2019년 기준 지방 지역의 휴대폰 소유 인구 중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68%로 추정된다. (자료: Digital 2020, The State of Mobile in Rural Vietnam Report) 이처럼 은행계좌·카드 사용은 활발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은 익숙한 지방 거주자들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내세운 모바일 머니는 전자결제 발전을 두루 활성화할 최선의 시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머니가 스마트폰 번호를 계정 삼아 사용되는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돈세탁, 탈세, 불법자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아직 도시 지역에서도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현지 교외의 모바일 머니 결제 인프라가 단기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향후 2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는 모바일 머니 시범 사업이 그 의도대로 범용적인 전자화폐 솔루션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및 침해보호방안

- 2019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총 6만5,411건
- 온라인 유통 증가로 지식재산권 침해 증가, 대비 필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크게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식물품종 보호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하며 대부분 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베트남에서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권은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창작 혹은 보유되고 있는 저작물을 가리키며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2019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 총출원건수 6만5411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상표권'이다. 2019년 베트남 상표출원 건수는 총 5만3801건으로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18.9%(1만154건)를 기록했다. 그 중 한국 출원건수는 총 2299건으로 중국(3861건) 다음으로 높았다.

침해건수 증가 및 대응방안

베트남 지식재산청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건으로 행정 제재를 받은 건은 2018년 동기 대비 81.8% 증가한 3293건이다. 이 중 상표권 관련 침해 사례가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한편, 가장 많은 침해건을 처리한 지역은 호치민시, 남딘, 랑선이었다. 최근 온라인 유통 등의 발달로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베트남 또한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의 경우 침해대응 방안으로 행정단속, 민사/형사 대응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 관할권을 갖는 집행기관은 법원, 조사단, 시장관리총국, 세관, 경찰, 인민위원회 등이다.

시사점

법무법인 R은 "베트남도 법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모든 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의 경험, 인력, 자원 부족 등이 문제다. 베트남에서는 행정단속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속 방법인데 이 중에서도 위조품이나 분명한 상표침해의 경우 단속기관이 잘 처리하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정경쟁 행위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단속기관에서 처리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민사의 경우 아직 베트남 법원이 지재권 관련 경험이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들은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이 효율적이지 않다 판단하고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이 억지력이 크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민사소송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정된 지식재산권 관련법안개정안도 행정단속 보다는 민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기고]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전현우 법무법인 JP 베트남사무소 대표 변호사(bhsjun@jplawvn.com)

1. 베트남 부동산 투자

최근 저희 법무법인의 자문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조·유통·물류업 등에 관한 신규 투자 문의 외에도 점차 오피스, 아파트, 오피스텔, 창고 등을 위한 부동산 투자 혹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의 회사들에 대한 투자 문의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의 경향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는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경향은 자산 및 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베트남으로 투자 대상이 폭 넓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투자대상 베트남의 유의점

생산 기지로서 베트남을 바라보시는 분들과 투자 대상으로서의 베트남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을 생각해보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가능한 투자가 있고, 향후 투자금 회수의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은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제조업 분야 등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폭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그렇다면 베트남의 부동산 권리관계는 어떻게 살펴보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베트남은 토지사용권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라는 증명서를 통해 토지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LURC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임대인과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어떤 토지인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인민위원회 결정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확인 가능한 근거 서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가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를 증빙하는 문서들을 필히 사전에 확인 및 검토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등기제도와는 달리 베트남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 증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3자가 부동산 등기소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반드시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베트남 법률상 대표적인 부동산 거래 방법

다음으로 베트남의 토지권리에 관한 거래 방법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① 기존 권리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는 경우 ②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받는 경우 ③ 담보권이 실행된 토지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낙찰 받는 경우 ④ 국가 소유의 토지 경매를 낙찰 받는 경우. 이 중 기존 권리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20년 베트남 지역 경쟁력 지수(PCI), 북부 꽝닌성이 최고점 차지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미국 국제개발처가 공동 발표한 베트남 지역 경쟁력 지수(PCI)에 따르면 북부 꽝닌성(Quang Ninh)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함. 이번 PCI 평가는 약 12,300개의 베트남 기업이 참가함. 꽝닌성의 '20년 PCI는 75.09점이며, 꽝닌성에 이어 남부 동탑, 롱안, 빈증성이 높은 평가를 받음. 한편, 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이 안정적인 정치환경 및 간편한 행정 절차를 갖춘 반면 부패 단속, 공공 서비스, 인프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바라봄

[Vov VN, 4. 15]

▶ 뱀부항공, 올 3분기 미 증시 상장 추진

FLC 그룹 자회사인 뱀부항공은 3분기 IPO를 통해 2억 달러를 공모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NYSE)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장에 성공 할 경우 시가총액은 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임. 뱀부항공은 이번주 초 주주총회에서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까지 1주당 6만 동(약 2.6달러)을 시작가로 호찌민 또는 하노이증권거래소에 국내주식 1억 5천만주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VN Express, 4. 15]

▶ 올 1분기 베트남의 對EU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9억 달러 기록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EVFTA 시행 8개월 동안 베트남 EU 시장 수출액은 약 48억 달러에 달함. EU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은 해산물, 섬유, 신발, 농산물임. 주요 수입 시장은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와 같은 EU 내 항구와 운송 센터를 보유한 국가임. '20년 8월 발효된 베트남과 EU간의 자유무역협정(EVFTA)은 베트남 시장에 큰 수출 기회를 제공함. 한편, EU는 베트남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임. '20년 베트남의 對EU 수출액은 437억 달러에 달했으며 EU로부터의 수입은 185억에 달함. '21년 첫 3개월 동안 EU로의 수출 비율은 18% 증가했으며 이는 약 15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

[VN Express, 4. 14]

▶ 교통부, 운송분야 지원책 확대 제안

교통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운송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함. 구체적으로 '21년 말까지 여객 및 운송 차량(버스 30%, 트럭 10%) 에 대해 도로 통행료를 할인할 것을 제안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소득세 50% 감면, 부채상환기간 연장 등도 제안함. 항공 운송과 관련해서는 '21년 말까지 이착륙 서비스 비용을 50% 인하하는 지원책을 연장할 것을 제안

[Saigontimes, 4. 14]

▶ 하노이, 올 연말까지 35만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첫 두달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지 18일만에 하노이에서는 총 53,350회 접종을 완료했으며 보건부는 올 연말까지 하노이의 우선접종대상자 3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힘. 하노이는 4월 12일까지 56일동안 지역사회감염 0건을 기록함

[보건부 뉴스, 4. 12]

▶ 호찌민증권거래소(HoSE), 시스템 업그레이드 위해 4월 8일 부터 신규 상장 일시 중단

호찌민증권거래소(HoSE)는 과부하된 거래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4월 8일 부터 신규 상장을 일시 중단함. 기 상장된 기업의 거래는 일시적으로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서 이루어지며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HoSE로 돌아갈 예정임. 호치민 증권 거래소는 최근 몇 달 동안 주식 거래 횟수가 폭증 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원활한 거래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FPT 가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밝힘. HoSE에는 3월 한 달 11만 3,875개의 신규 주식 계좌가 개설되어 신규 주식 계좌 수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총 계좌 수는 약 302만 개에 달함

[Nhan Dan, 4. 10]

▶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5명의 부총리와 22명의 장관 임명, 신규 내각 출범

베트남 국회는 4월 8일 오전 팜 민 찐 총리와 5명의 부총리 및 22명의 장관을 임명함. 기존 부총리 3명 (쯔엉 화 빈, 부 득 담, 팜 민 빈) 외에 레 민 카이(전 감사원장)와 레 반 탄 전 하이퐁시 당 서기장이 신임 부총리로 임명되었으며, 판 반 지앙 국방부 장관(전 국방부 차관), 응웬 홍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전 중앙선전부 부부장), 외교부 장관 부이 탄 선(전 외교부 차관) 등 22명의 장관을 임명하여 팜 민 찐 총리가 이끄는 총 28명의 신규 내각이 출범함

[VN Express, 4. 8]

▶ 베트남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3.6

베트남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6으로 전월 51.6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하며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임. 조사 대상 동남아시아 7개국 평균은 50.8로 베트남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수치는 최고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국가의 PMI지수는 인도네시아(53.2), 필리핀(52.2), 싱가포르(50.7), 말레이시아(50.0), 태국 (48.8), 미얀마(27.5) 순으로 나타남

[HIS Markit, 4. 7]

▶ 2021-2030 서비스분야 7~8% 성장 목표

베트남 총리, 2021-2030 서비스 분야 발전 전략 및 2050년까지의 비전을 승인함. 2021-2030 기간 동안 서비스 분야 성장률 목표를 GDP 성장률 목표 보다 높은 7~8%로 설정하고 서비스 분야가 2030년까지 GDP의 약 50%, 2030~2050년 기간 동안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 발전 전략은 서비스 부문 제도 개혁을 강화하고 금융, 은행, 보험 및 의료 서비스 등에 디지털 전환을 적용하여 서비스 산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임

[Nhan Dan, 4. 6]

▶ 베트남 스타트업 CEO 월평균 급여, 인도네시아·싱가포르보다 낮아

Monk's Hill Ventures와 Glints의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자금 유치규모 5백만 달러 미만 소규모 스타트업 CEO의 월 평균 급여는 1,000 달러로, 인도네시아(2,000 달러), 싱가포르(4,000 달러)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금유치규모 1,000만 달러~5,000만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CEO는 싱가포르에서 월 평균 1만 1,500 달러를 받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6,000 달러를 받는다고 보고됨. 한편, 베트남의 선임 프론트 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 월 평균 급여 3,500 달러로, 인도네시아(2,800 달러) 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지만 싱가포르(9,500 달러) 보다는 낮은 급여를 받음

[VN Express, 4. 5]

▶ 네이버·하노이과학기술대학(HUST) 공동 하노이 최초 AI 연구센터 출범

지난 3월 31일 하노이 최초의 AI 연구센터가 한국의 네이버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의 공동 투자로 출범함. 이 연구소는 베트남 전역의 AI 연구단위를 연결하고, 전 세계 산업분야의 AI 연구 및 응용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앱을 홍보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베트남의 4.0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예정 베트남은 2030년까지 AI 연구, 개발 및 응용 분야에서 아세안 4위, 세계 50위를 목표로 하고 있음

[Hanoi Times, 4. 3]

▶ 베트남 '21년 1분기 대미수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

통계청, 2021년 1분기 베트남의 對미 수출은 2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했다고 발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경기회복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의 對미 수출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VN Express, 4. 1]

▶ 베트남 항공국, 교통부에 단계적 국제선 재개 제안

베트남 항공국은 국제선을 3단계로 재개하는 방안을 교통부에 제안함. 1단계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베트남 자국민을 태운 국제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15일 의무 격리를 시행해야 함. 2단계는 7월 부터 해외 귀국 자국민과 외국인을 위한 국제선을 재개하는 단계로 입국자는 반드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의무 격리를 시행해야 함. 2단계의 국제선 재개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에 한하며 주4회 편도로 입국편 운항할 것을 제안, 3단계는 오는 9월 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하여 베트남 정부에서 인가한 국제선 허용국가당 주 7회 입국 노선이 재개되는 방안이나 입국자는 입국일 3-5일 내의 코로나19 RT-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소지하고, WHO 승인 국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베트남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7-14일간 자가격리, 베트남에 거주지가 없을 경우 14일간 의무시설 격리 혹은 자비 부담 격리를 수행해야 함. 이는 아직까지 교통부에 제안 된 사항으로서 베트남의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사항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Baotintuc, 3. 31]

▶ SK 그룹, VINCOMMERCE 주식 16.26%, 4억 1,000만 달러 인수

4월 6일, SK그룹은 마산 그룹(HOSE: MSN)과 마산의 자회사인 Vin Commerce 지분 16.26%를 현금 4억 1,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VinMart, VinMart+등 2,300여개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베트남 1위 유통 기업인 Vin Commerce는 이번 계약으로 마산 그룹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함. 현지 언론은 베트남의 현대식 식료품 소매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통계청, 3. 29]

▶ 하노이,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900개 기업 육성 목표

하노이는 올해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 분야에서 900개 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를 세움. 2021년 하노이 지원산업 개발 프로그램(49/KH-UBND)에 명시된 계획에 따라 지원산업은 가공 및 제조분야 총 생산 규모의 16%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 됨
관련 문서 : 하노이 2021년 지원산업 발전 계획 링크(49/KH-UBND)

[Vietnam News, 3. 25]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Khanh Hoa성 변전소(500kV) 조달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 Ha Tinh성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 조달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Khanh Hoa성 변전소(500kV) 조달

발주처	○ 기관명 : EVN 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 현장위치 : Khanh Hoa성 Van Phong지역 ○ 규모 : 약 18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재원 ○ 프로젝트 단계 : 감리 및 기술설계 검토 중 ○ 입찰예정일 : '21. 6월 ○ 세부내용 - 변압기 900MVA-500 조달 및 설치 - 배전설비(circuit breaker, isolator 등) 조달 및 설치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발주처	○ 기관명 :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 현장위치 : Đồng Quang, Quốc Oai (하노이 서부 약 20km) ○ 규모 : 10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F/S 단계 ○ 입찰예정일 : '21. 9월 ○ 세부내용 : - 하노이 서부지역 500k 변전소 신축 프로젝트 - 300MVA 변압기 3개 조합 통한 500kV-900MVA 변전소 건설 -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부속품 공급 및 설치

(입찰정보)

□ Ha Tinh성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 조달

발주처	○ 기관명 : Thai Khang Minh Technology JSC (Thyssenkrupp Materials) ○ 웹사이트 : www.tkmvietnam.com.vn ○ 연락처 : +84-24-6694-6789
프로젝트	○ 현장위치 : Ha Tinh성 Ke Go호수 ○ 규모 : 약 58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상용대출 ○ 프로젝트 단계 : F/S완료, 기술설계 검토 중 ○ 입찰예정일 : '21. 11월 ○ 세부내용 - 구매품목 : ESS, Solar panel - Ke Go호수 50ha, 50MW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립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DCF KOREA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노이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이하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ECA)입니다.

< 공적수출신용기관(ECA) >

수출 촉진을 위한 대출·보증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의 중장기 수출금융은 WTO의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금융으로 인정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수은과 같은 ECA를 통해 자국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

* 35개 OECD 회원국 중 32개국,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이 운영 중

수은은 수출입·해외투자 금융지원 업무 외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협력기금(IKCF)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노이사무소는 EDCF 사업 발굴·관리 및 수출금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란 무엇인가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원조기금입니다.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식의 유상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차관사업 경험을 통한 해외진출 발판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EDCF의 운용주체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 발굴 및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 집행 및 회수, 사업 진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까지 EDCF를 통한 개도국 지원은 총 57개 국가의 460개 사업에 20조 5,058억원이 승인되었고 10조 1,077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규모 목표 달성을 위해 EDCF 사업 발굴·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DCF KOREA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하노이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베트남은 지난 2006년 EDCF 협력국 중 최초로 주재원이 파견된 나라로서, 2011년에 정식으로 하노이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베트남의 EDCF 유망사업 발굴, 사업 진행 관리, 현지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금융 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57개 EDCF 협력국 중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은 지난해 말까지 약 26억불 상당, 66개 사업이 승인(누계)되어 전체 승인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점 협력국이자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른 수출금융 지원 핵심 신흥국입니다. 이러한 베트남과의 협력대상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개발수요, 우리기업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데, 지금까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수요에 부응하여 교통, 수자원에 75%를 집중함으로써 베트남의 산업발달과 외자유치 기반 마련에 기여해왔습니다.

교통 분야의 경우 WB·ADB 등 국제 원조기관과 협력하여 하노이·호치민·메콩델타 지역 등에 대규모 도로·교량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7구간 및 10구간 건설사업, 밤콩교량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지방성의 상하수 처리 시스템, 병원 건립 등 수자원·위생·보건 분야의 다양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금융의 경우 발전·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공항·메트로 등 교통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금융·기업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온렌딩·전대금융 등 다양한 기법의 금융도 병행하는 등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은 하노이사무소는 베트남 팀코리아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EDCF,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 최적의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사업 수주 및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과 환경의 유기적 연결 추구… ICT 엔지니어링 전문 컨설팅 IT 기업 'ICOMER VINA'

조규하 법인장

ICT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아이커머, 베트남에 진출하다

icomer vina의 모기업인 ㈜아이커머는 2002년 설립 이래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ICT 전문업체입니다. ICT 솔루션과 인프라 컨설팅 개발 및 구축, 관제 솔루션 개발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그룹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안정정인 성장기반을 마련했고, 국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오만 포렌식 센터, 르완다 국방부 상황실, 인도,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표준청, 라오스 국세청 전산실 등 약 17개국의 해외정부사업을 수주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베트남 IT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5년 베트남 법인 icomer vina를 설립하여 지역전문가 확보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법인은 인도 차이나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진 기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상의 IDC Solution 제공

정보산업 분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속에 놓인 고객사들은 시스템 및 통신설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전산시설의 증축 및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커머는 상황인식 기반 지능형 융합 서비스를 지향하는 핵심기술 및 기반기술을 확보한 뒤 품질이 향상된 FMS, 비상발전기, 소화설비, UPS, 항온항습기 등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 공정 별 컨설팅 > 설계 > 시공 > 감리 단계를 거쳐 기존 전산 센터와 차별화된 최상의 IDC Center를 구축하여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합니다.

ICOMER VINA.

HDC, 기술가상화 등 다양한 ICT Solutions 제공

고객의 Needs를 분석해 고객 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컨설팅합니다. 차별화된 H/W, S/W Solution을 제공하며 판매 및 기술지원, 사후 관리 역시 진행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IT인프라,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가상화, 클라우드,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고성능 컴퓨팅으로 기후 연구나 물리적 시뮬레이션, 자동차 설계, 재무 모델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컴퓨팅 플랫폼인 HPC, 한정된 물리적 서버 자원을 복수의 가상머신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가상화(서버 가상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술인 클라우드와 IT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통합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Change, Challenge, Win-Win!의 기업정신으로 사회에 기여

COVID-19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베트남 IT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낮은 인건비와 첨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전자 제조업체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과 스마트 산업 구조로의 전환, 스마트 시티 체인 확대 등의 HW, SW, 디지털 컨텐츠, IT 서비스로 구성된 IT 산업 전체가 성장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COVID-19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효율적인 솔루션을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객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과 대폭 감소된 고객사의 투자로 인해 포기했던 베트남 남부 지사 및 라오스 법인 설립 등의 시장 확대 방안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POD(Publish On Demand 고객이 원하는 대로 책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내 벤처도 베트남에서도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단계들 거쳐가는 동안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에 적극적인 R&D 투자 역시 진행됩니다. 아이커머는 통합관제 시스템 제품개발과 ICT, 인간, 자연 환경의 결합을 통한 콘텐츠로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Change, Challenge, Win-Win!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ICOMER VINA.

다른 기업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

'어려움은 나누면 반이 된다'

사회공헌활동(CSR)이라는 말이 어렵고 대단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CSR은 이방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모습을 전제로 사회와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주변에 있다'

베트남 법인장으로 부임한 2015년 이전 해외 사업 담당자 시절,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채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현지무역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당시에도 짧은 시간동안 하노이 무역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 하였습니다. 설립 후 대사관, 코참, 코트라, 대한상의 등 기관들과 주변 기업의 지원과 협조로 베트남 법인의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 진출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베트남에서 함께 있는 교민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

Shinhan Bank

베트남 외환 주요 이슈 사항

신한베트남은행 리테일뱅킹부 도사무엘 부장
dosamuel@shinhan.com

외환 업무는 해당 국가 별 외국환거래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외국환거래법 등을 확인(신고대상 여부, 제출 서류 등)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1. 한국 ↔ 베트남 외화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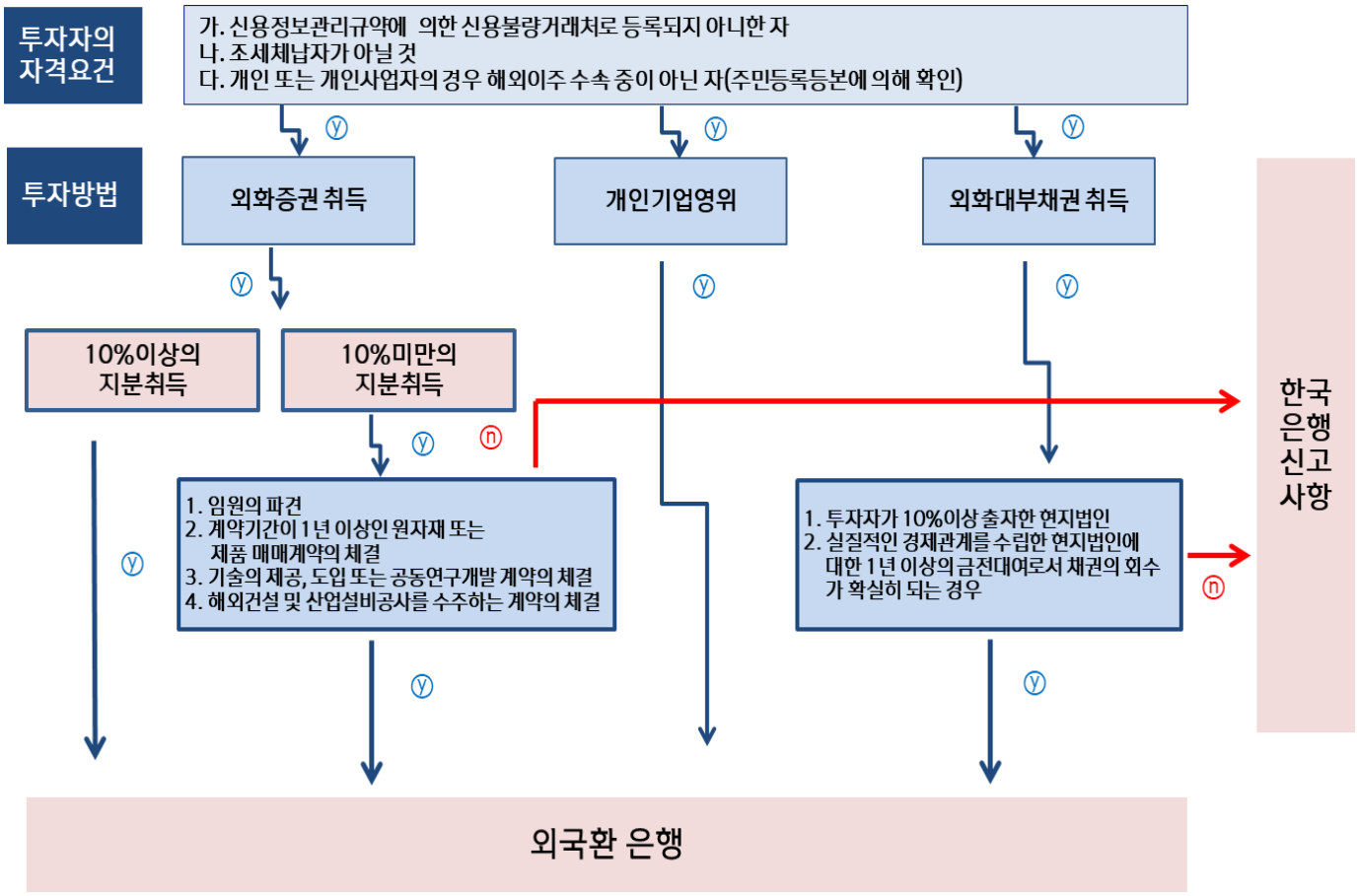
주요 외화 송금 사유 별 조건 및 사전 신고 여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 → 베트남]

1)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해 외화 송금을 하는 경우(지분 취득, 대여 포함)
   10% 이상 지분 취득, 또는 10% 미만 시 현지 기업과 직접적인 사업관계 입증 조건 해당 시 '외국환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단의 해외 직접 투자 사전 점검표를 통해 세부 내용 참고)
2) 해외 부동산 취득 시에는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로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환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3) 수출입 목적으로 외화 송금 시, 수출입 관련 증빙 서류로 송금이 가능하며 사전 신규 불필요하다.
4) 증여성 송금 진행 시에는 연간 미화 5만불 한도 내에서 서류 제출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해외법인 설립, 해외 부동산 취득 송금 제외)

Shinhan Bank

※ 해외 직접 투자 사전 점검표



[베트남 → 한국]

1) 수출입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외화 송금 시 통관서류가 포함된 관련 증빙 서류로 송금이 가능하며, 수입사전송금 등 통관서류 미비 시에는 사후 제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2) 법인의 배당금 송금 시, 배당가능 소득범위 내에서 법인세 납부 후 송금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는 재무제표, 이사회결의서, 법인세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3) 해외 차입금 상환을 위한 송금은 원리금 상환 스케줄에 따라 송금이 되어야 되며, 원리금 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한다. 중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중앙은행 허가서도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Shinhan Bank

2. 베트남 내 외화사용 관련 주요 제도

베트남 중앙은행은 동화 환율 안정화 도모 등의 취지로 국내에 달러 유통을 제한하는 정책(Anti-Dollarization)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모든 거래는 일부 허용된 거래 외에 모두 VND 통화로 이루어져야 되며 USD 예금 금리는 0%로 유지 되고 있으며 USD 대출은 제한된 범위 하에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다. 아래 베트남 내 외화 사용 및 외화 대출 가능 조건에 대해 정리해 놓았다.

※ 베트남 내 외화사용 및 외화 대출 가능 조건

구분	주요 내용	
베트남 내 외화사용	- 통관 관련 - 금융기관의 외환관련 거래 - 기타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관련 허가 득한 기관의 외환거래 - 거주자가 외투 프로젝트에 참여시 - 수출입 대행업자의 외화표시 대행 계약에 대한 거래 - 국제 입찰 관련 대금 거래 - 보험사의 외국 기관으로부터의 재보험 - 국경지역, 보세창고 등에서의 서비스 - 외국물류회사의 Agency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거래	- **수출을 위한 원재료 구매, 생산, 가공과 관련한 대금 지급(Export Processing Zone입주기업, 또는 IRC상 'Export Processing' 기업)** - 법인이 동 법인의 독립사무소에 외화 자본금 송금 - **항공, 호텔, 관광업의 경우, 외국어 표시 광고지 등에 달러 표시 병기 가능 (달러 수취는 금지)** - **외국인과의 노동계약상 급여, 성과급 등에 대해, 외화로 표시 및 지급 가능** - 거주자가 비거주자(베트남 내)에게 제공한 판매, 서비스제공에 대한 결제 대금 - 면세품 판매시
외화대출 <끝>	- **수입대금 결제 용도로, 차주사 사업을 통한 외화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 - 정부허가 유류 도매업자로, 유류 수입 결제 용도(대출기간 1년 이내) - **수출을 위한 생산 등 국내사업 소요 자금으로,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상환이 충분한 경우 (대출기간 1년 이내)** - 국가 승인 하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 자금	

LAW2B 로 투 비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1. 취업규칙이란? & 등록대상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반 시 처벌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베트남의 취업규칙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 규칙을 관할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 등록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기업의 내부 규정으로, 베트남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징계 등에 대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은 내부 노동 규정 또는 내부 근로 규정(Internal Labor Regulation; ILR)이라고도 부른다.

주위를 보면 한국 본사의 취업규칙을 베트남어로 단순 번역하여 베트남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의 타 회사 취업 규칙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징계와 해고 등의 처분 근거가 되고, 향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도 처분이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은 베트남법에 맞게,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노동법상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는 견책, 최대 6월 간 임금인상 동결, 강등, 해고만 가능한데, 취업 규칙에서 노동 규율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징계 조치 유형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적 의무는 없으나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가급적 취업규칙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2021년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을 등록한 기업이라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수정 취업규칙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 효력이 만료된 취업규칙을 사용하면 오백만 동~천만 동(한화 약 24만 원~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례로 구 노동법(Law 10/2012/QH13)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여러 조항에 걸쳐 부분적으로는 존재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처리 과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LAW2B 로 투 비

취업규칙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더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문서로 된 취업규칙이 없거나, 문서로 된 취업규칙이 있어도 관할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각 사안에 대해 오백만 동~천만 동(약 24만 원~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오십만 동~백만 동(약 2만4천 원~4만8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 노동법에는 불시 근로감독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 노동법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권한을 명시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노동법 관련한 감독과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개정 노동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꼭 등록하기를 권한다.

2. 취업규칙 등록 절차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필자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노이에서의 취업규칙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할 당국
-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
- 주소: 75 Nguyen Chi Thanh,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 서류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8:00~11:00, 13:30~16:30), 토요일(8:00~11:00)

(2) 제출 서류: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 원스톱 창구에 서류를 접수함
- 취업규칙 등록 신청서
- 위임장
- 취업규칙 2부
- 단위 근로자 대표 단체의 의견서
- 취업규칙 제정 결정문

(3) 원스톱 창구에서 제출 서류 검토: 하기 ①~③ 중 하나로 진행함
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것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지에 대해 명시하고, 보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함
② 서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 사유를 명시해 통보함
③ 제출된 서류가 충분한 경우: 서류 접수증을 발급함

LAW2B 로 투 비

(4) 노동 보훈 사회국 내부 업무
- 제출한 취업 규칙 관련 서류는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에게 전달됨
-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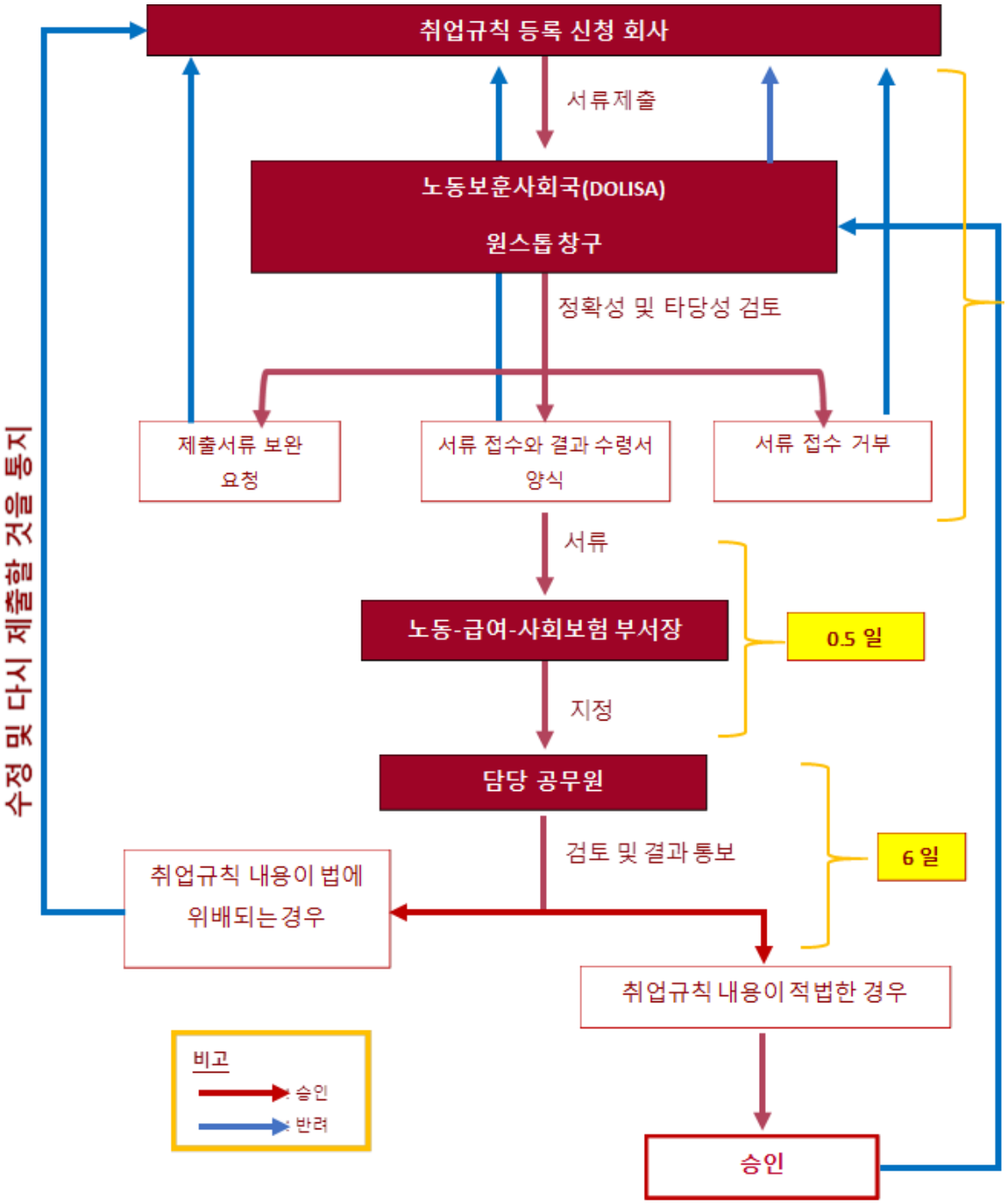
(5) 서류 검토 및 결과 송부
-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함
- 취업규칙의 내용이 모두 적법한 경우는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국장의 서명이 된 승인 결과를 송부함

3. 취업규칙 등록 실무 팁

1) 오후 3시 이전에 접수한 서류는 당일, 오후 3시 이후 접수한 서류는 익일에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에게 전달되니, 가급적 3시 이전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2) 온라인(http://dvc.vieclamvietnam.gov.vn/)으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나 링크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
3)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서류 제출자의 위임장은 요구된다.
4) DOLISA에서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다.
5) 거의 모든 경우, DOLISA 에서는 최소한 1회 이상 취업 규칙 내용 수정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DOLISA 담당자가 제출 서류의 보완을 위한 양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간 절약을 위해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두로 취업규칙 수정을 요청한다.
6) 법상 유효한 취업규칙의 발효일은, DOLISA에서 취업규칙 보완 요청이 없다면 취업 규칙 접수일로부터 15일 후부터이다(노동법 제121조). 취업규칙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수정본 제출일 1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LAW2B 로 투 비

4. 취업규칙 등록 절차도



* 일상에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본 칼럼에서는 '사용자'와 함께 '회사', '기업' 등의 일상적인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끝>

BDLAW
FOR YOUR BUSINESS DEVELOPMENT

"상표등록은 내아이의 출생신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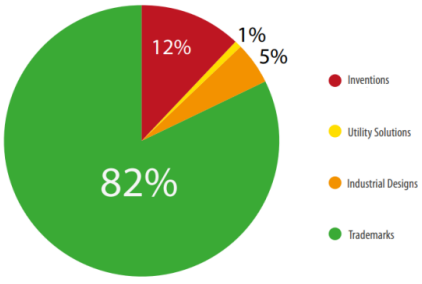
딩 응웬 프엉 타오
변호사
법무법인 BDLAW
thaodnp@bdlaw.vn

송정숙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BDLAW
songjs@bdlaw.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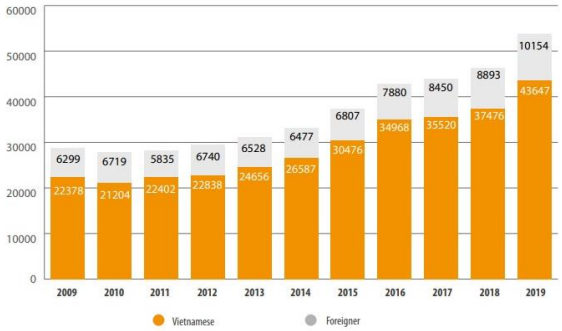
"상표등록은 내아이의 출생신고다. 내가 만든 상표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유명한 사업가 한 분이 말한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상표는 제품의 신분증이다. 생산자는 자신이 만든 제품임을 보증하는 상표를 붙여 시장에 내보내고 소비자는 그 상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 인터넷시대에 상표의 신분증 역할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I.베트남 상표권 현황[1]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국 (Cục Sở Hữu Trí Tuệ) (이하 "특허청") 에서 담당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이란 곧 상표출원을 지칭할 정도로 상표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Direct applications broken down by subject matters in 2019



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s filed from 2009 to 2019 by the Vietnamese and the Foreig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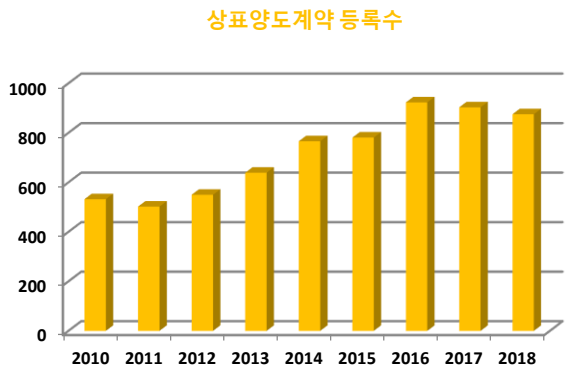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마다 국내외 업체의 상표등록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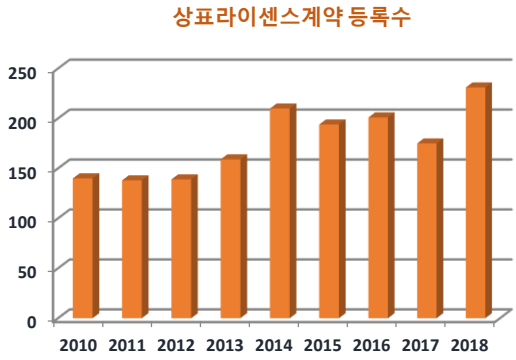
지적재산권으로의 상표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표권 양도계약과 라이선스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1] 특허청에서 발간한 2019년도 연간보고서에 나온 통계를 자료로 한다.

BDLAW
FOR YOUR BUSINESS DEVELOPMENT

얼마 전 베트남을 대표하는 두 대기업인 Masan Group 과 Vin Group 간에 이루어진 자회사 인수합병에 있어서 adayroi.com 등 제반의 상표권 또한 함께 양도되었다. 상표권양도계약은 특허청에 이를 등록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나, 상표권 라이센스계약은 2019년 지적재산권 개정법 하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상표권은 2005년에 제정된 지적재산권법을 근간으로 제반의 국내관련법과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보호된다. 최근에 베트남- 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실제적 상표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기된다.

II. 선출원 등록 원칙

상표권이란 상표소유자의 사익보호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공익보호를 위해 등록된 상표의 독점 배타적 사용권을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출원등록한 자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원상표가 식별성이 없음을 근거로 등록이 거절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상표여부는 심사관에 의해 출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기에 예측하기 어렵다. 예로 미국 상표 McDONALD'S 의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인정되어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상표 X-MEN 의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인정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된 적이 있다.
이에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조속히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안전하다.

BDLAW
FOR YOUR BUSINESS DEVELOPMENT

III. 상표 출원 등록 절차

상표등록을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출원>심사>등록** 절차로 나눌 수 있다.

1. 사전조사

사전조사란 출원상표의 부등록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법정 출원요건은 아니나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조사에서 부등록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길고, 이의신청기간 또한 길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후 등록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기에 사전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사전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상표존재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만약 선행상표를 발견하고도 출원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다음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 선행권리자와의 협의:
  선행상표권리자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출원포기나 출원/등록양도를 받는 것이다. 선행권리자의 권리포기나 양도는 특허청에 신고 등록되어야한다.

- 불사용 상표의 등록취소:
  선행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5년이상 사용되는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선행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로 프랑스 유명 의류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CROCODILE”이 베트남인에 의해 출원등록되었다. 프랑스 회사가 특정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분등록 취소가 인정된 것이다.

프랑스회사의 WIPO 국제출원 등록상표

CROCODILE

베트남회사의 등록상표

- 도용상표의 등록무효:
  선행등록상표가 도용상표인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예로 미국의 쇼셜미디어 회사인 SNAP Inc.는 본사 상표 ”SNAPCHAT”과 동일 유사 상표가 베트남인에 의해 출원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선등록 상표의 등록무효주장을 하여 본사 상표를 등록받는데 성공하였다.

2. 출원

특허청에 법정 서류를 첨부한 출원서를 제출한다. 법정 서류에는 상표샘플도 포함된다. 베트남에서는 시각적 상표만 출원등록되며 비시각적상표 (소리, 냄새, 등)는 출원등록이 되지 않는다.

3. 심사

- 형식심사: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형식심사를 한다.
- 출원공고: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2개월 안에 출원공고된다.
- 실질심사: 출원서가 실질적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출원공고일로부터 6개월안에 행해진다.
- 이의신청: 출원공고 이후 실질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일반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법정심사기간은 약 1년 정도라 하겠으나 심사적체로 인해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질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또한 연장되어 출원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4. 등록

출원상표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등록공고가 행해진다. 등록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상표권은 발생하고 기간은 출원일로부터10년간이다. 차후 기간만료시10년 기간의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베트남에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다. 베트남시장에서 아직 거래되지 않는 제품의 상표등록출원도 가능하다. 베트남에서의 상표권보호 현황에 비추어,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있어, 현지 회사설립에 앞서 고려해야할 점이 상표등록이라 본다. <끝>

ALF
법무법인 아세안

베트남 노동법상 현지직원 퇴직금 지급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甲사는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를 운영 중인 업체이다. 해당 대표사무소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현지직원은 2011년부터 근무한 베트남 내국인 직원으로 해당 대표사무소가 베트남 현지직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내 만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다. 다만,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경우, 사용자가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리, 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 기업 도는 협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리, 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베트남 내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베트남 내 퇴직금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퇴직금 = 근무기간 x 퇴직금 계산근거 임금* * x 1/2*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6개월의 근로계약에 따른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사회보험법 또는 고용법에 따른 실업보험 납무 기간 및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무 기간을 뺀 기간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한 기간, 사용자에 대한 근무를 위한 수습, 직업훈련, 견습 기간, 사용자가 학업을 허용한 기간,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은 휴가기간, 노동법에 따른 주휴일 및 유급휴가 기간,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시간, 근로자의 책임 없는 작업 중지 및 근무 정지 기간, 유치, 감금되었거나 권한 있는 국가기간이 무죄 결정을 내려 복귀하는 경우 근무를 정지당한 기간 및 유치, 감금된 기간을 포함하게 된다.

ALF
법무법인 아세안

근로자가 여러 번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사용자에게 근무한 경우, 마지막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각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한 총 기간이다.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마지막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마지막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마지막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6개월 근로계약에 따른 평균 임금인 점도 유념할 필요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제도가 베트남 내 도입된 이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또한 사용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실업보험료 수준과 동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함께 지급한 기간도 근로자의 실업보험 납부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점 주지가 요망된다.
따라서, 甲의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경우, 해당 현지직원의 실업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2011년도 해당 직원이 채용되어 예컨대 2021년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예를 들어볼 경우, 그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귀사에서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 10년에서 실업보험 납부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용자는 베트남 국민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용자를 의미한다. 실업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계약),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2009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채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우리 한국투자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 기간은 연(12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연 단위를 넘는 잔여 개월 수가 있는 경우에는 만 1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1/2년으로, 만 6개월 이상 만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 근무 기간을 산정한다. 예컨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기간이 32개월이라면 2년 넘는 8개월에 대해서는 1년으로 정산되어서 최종 3년이 된다.

ALF
법무법인 아세안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은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직접 6개월의 근로계약에 따른 평균임금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에는 1) 임금표, 임금등급 상의 업무 또는 직책의 기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 2) 합의한 임금 수준에 아직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근로환경 요소, 업무의 난이도, 생활조건을 보충하고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한 각 수당 항목, 3) 근로계약에 합의한 임금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될 수 있고 매 임금 지급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보충금 항목이 포함된다.

베트남 노동법 제103조 규정에 따른 상여금, 제안발명 상여금, 교대사이의 식비, 차량유류 지원금, 통신비 지원금, 출퇴근 지원금, 주거비 지원금, 보육양육 지원금, 근로자의 친족의 사망결혼 및 근로자의 생일에 대한 지원금,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당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기타 지원금 내지 보조금 같은 '기타 제도 및 복리후생'과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되는 점에 주의가 요망된다. <끝>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하남성

□ 하남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861.93㎢ • 인구: 861,832명('20년) • 도시거주 비율: 27.8%
지정학적 위치	• 하남성은 홍강 삼각주 남서부와 북부 주요 경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인 하노이로 진입하는 관문임 • 하남성의 수도인 푸리(Phu Ly)시는 하노이에서 58km 거리로서 하남성의 경제-정치-문화 중심지이며 향후 하노이의 위성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접근성	하남성은 동쪽으로는 흥엔(Hung Yen)성, 남쪽으로는 남딘(Nam Dinh)성과 닌빈(Ninh Binh)성, 서쪽으로는 호아빈(Hoa Binh)성과 인접해 있음. 하남성 중심에서 하노이 중심까지 50㎞떨어져 있으며, 노이바이 공항까지 차로 1.5시간, 하이퐁 항구까지 차로 2시간 소요됨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전년대비 성장률: 7.02% • 성 1인당 GDP: US 3,030 달러/년, 전년대비 8.6% 성장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0년)	• 총 수출액: US 30.77억 달러 / 총 수입액: US 27.93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9.5%), 서비스업(2.8%), 농수산업(9%)
산업구조('20년)	• 공업/건설업: 63.4%, 서비스업: 27.6%, 농수산업: 9%
노무여건('20년)	• 성내 노동가능 인구비율: 55% • 교육 후 고용 비율: 70% 이상 •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 교육 후 고용 비율: 55%
최저임금('20년)	• Phu Ly시, Duy Tien, Kim Bang현: VND 3,430,000= US 149 달러(3급지) • Ly Nhan, Binh Luc, Thanh Liem현 : VND 3,070,000=US 134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 하남성내 총 외국인투자는 326개 프로젝트 43.35억 달러(2020년 12월 18일 기준) • (한국) 129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4.38억 달러를 투자하여, 하남성에 투자한 12개의 국가들 중 투자 1위 (2021년 4월말 기준)

□ 투자환경

ㅇ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도로)**

➢ 고속도로 및 국도 : 1개의 고속도로(Cau Gie-Ninh Binh)와 NH1A, QL21A, QI21B, QL38, QL38B, QL37B, 확장 NH21B 등 7개의 국도가 있으며, 1개의 우회로(QL1A) 및 하노이시 순환도로 VD5가 인접하여 건설될 예정임

➢ 하남성 전체에 4,000㎞ 의 내부연결도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1,000km가 넘는 주요 도로를 포함하여, 지방 경제발전에 유리한 토대가 되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지역에 마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자동차 도로가 구비되어 있음

- **(철도)** 하남성을 관통하는 남북 철도 구간의 길이는 약 30㎞ 임
- **(항만)** 21개의 강 항구가 있으며, 하이퐁 항구에서 2시간 거리에 있음
- **(항공)** 하남성 중심에서 하노이 수도 중심까지 50㎞ 떨어져 있으며 노이바이 공항까지는 1.5시간 소요됨

ㅇ 자연 자원

➢ 하남성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음. 성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시멘트 석회석 매장량 42억톤, 시멘트 점토 5.4억톤, 시멘트 첨가제 1.9억톤, 백운석 2억톤에 달함

ㅇ 인센티브 지원 정책

1.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안에 위치한 경우

a. 토지세 인센티브

- 토지 임대 기간 : 최대 50년
- 토지 임대료 면제 : 정부 규정에 따라 가장 우대한 비율 적용. 기본 건설 중 토지 임대료 면제(최대 3년), 그 후에 투자 분야에 따라 7~15년 동안 계속 면제.
  + 특별투자촉진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첨단 기술, 지원 산업, 공단 인프라 시설 건설 등) : 프로젝트 시작부터 15년간 면제
  + 투자촉진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작부터 11년간 면제
  + 기타 투자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작부터 7년간 면제

b. 인프라 임대료 인센티브

인근 성의 산업단지에 비해 가장 경쟁력 있는 인프라 및 공장 임대료를 적용. 공장을 임대하면 3~6개월 동안 공장 임대료를 면제(공장 임대료 약 US 4.5 달러/㎡/월)

c. 법인세 인센티브: 정부 규정에 따라 가장 높은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

d. 수입세 인센티브:

투자지역, 분야	수입세	감면, 면제 기간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e. 인력 훈련 및 채용 지원 정책:

- 하남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숙련된 인적 자원을 제공
-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성의 직업 훈련 계획에 따른 지원
- 직원 직업 훈련 제공용 현금 지원: US 43.5 달러(VND 1,000,000)/직원
- 기업을 위한 무료 인력 채용 지원

2.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밖에 위치한 경우

＊ 첨단 기술을 응용한 농업 생산 프로젝트:

- 토지 임대 기간은 20년이며 계속 연장 가능
- 토지 개량 공사 중 토지 임대료 면제(1년)
- 프로젝트 인프라, 인적 자원 교육, 시장 개발 비용의 일부 현금 지원(투자 후)

□ 외국인 투자현황

ㅇ 외국인 투자

2020년 12월 18일기준 하남성에 총 유효한 전체 투자 프로젝트수는 1,026개임. 이중 외국인투자는 총 326개 프로젝트에 걸쳐, 43.35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이중 산업단지 안에는 284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총 자본금은 41.04억 달러임. 산업단지 밖에는 42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총 자본금은 2.3억 달러임.

ㅇ 한국계 투자

2021년 4월 기준 누계로 한국기업의 투자는 총 129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4.38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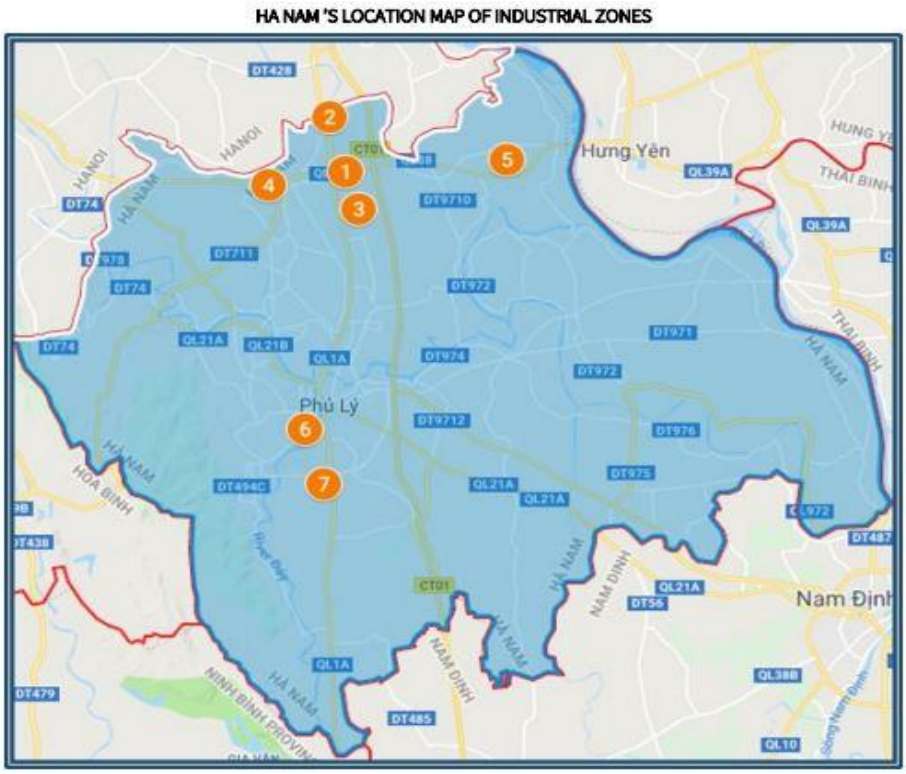
ㅇ 하남성 공단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USD)
1	Seoul Semiconductor Vina	LED 전구 연구, 개발, 제조, 조립 및 가공	한국	350,000,000
2	Wistron Infocomm	각종 컴퓨터 장비 및 주변기기제조,조립. 전자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제조	대만	273,913,000
3	Qisda Vietnam	LCD 액정 스크린, 컴퓨터 터치 스크린, 전자 드로잉 보드 및 펜 제조 및 조립	대만	263,000,000
4	Branch of Honda Vietnam	오토바이 및 부품 제조, 조립 및 수입. 윤활유, 헬멧 및 기타 액세서리 수입 및 유통	일본	212,461,000
5	Tai Yuen Textile Vietnam	방적, 편물 및 의류 제품 생산	대만	150,000,000
6	KMW Vietnam	라디오를 사용하는 통신 장비 및 LED 조명 장치 생산	한국	100,000,000
7	Ace Antenna	첨단 무선 안테나 및 무선 주파수 생산	한국	95,000,000
8	Branch of YKK Vietnam	지퍼 및 의류 산업의 원료 생산	일본	85,000,000
9	Sumi Vietnam Wiring System	자동차,오토바이 사용의 전기배선 시스템 생산	일본	75,000,000
10	Anam Electronics VietNam	민간 전자 제품 생산	한국	68,680,000

□ 공단 현황

ㅇ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면적 (ha)	주요정보	투자자
1	Dong Van I	221	• 총 94개 프로젝트, US 8.68억 달러 • 46개 FDI 프로젝트(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US 6.69억 달러 • 입주율 : 100% • 2022년까지 Cau Gie-Ninh Binh고속도로의 동쪽으로 약 150ha를 확장하여 총 면적을 371ha로 늘릴 계획임	Ha Nam Industrial Zon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2	Dong Van II	320	• 총 95개 프로젝트, US 13.98억 달러 • 74개 FDI 프로젝트(한국, 일본, 미국 등), US 12.87억 달러	Ha Nam Industrial Zon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3	Dong Van III	300	• 현재까지 남북 고속도로의 서부 지역(169ha)은 인프라 투자 완료 • 총 43개 프로젝트, US 6.66억 달러 • 현재 남북 고속도로 동쪽으로 약 223ha를 확장, 총면적을 523ha로 늘릴 계획임	Dong Van III Industrial Park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4	Dong Van IV	300	• 총 37개 프로젝트, US 7.88억 달러 • 25개 FDI 프로젝트(한국, 대만 등), US 6.36억 달러 • 약 50ha의 산업 토지 임대 가능	Viglacera Corporation
5	Hoa Mac	131	• 총 35개 프로젝트, US2.85억 달러 • 28개 FDI 프로젝트(한국, 일본 등), US 2.28억 달러 • 약 26ha의 산업 토지 임대 가능 • 2022년까지 공단의 북쪽으로 72ha 확장, 총 면적 203ha로 늘릴 계획임	Hoa Mac Industrial Park Exploitation & Management Company Limited
6	Chau Son	377	• 총 119개 프로젝트, US 7.81억 달러 • 56개 FDI 프로젝트(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호주 등), US 3.58억 달러 • 약 28ha의 산업 토지 임대 가능	• 단계 1: 하남성 • 단계 2: VPID Ha Nam One Member Company Limited
7	Thanh Liem	293	• 단계1(150ha)인프라 투자 완료 • 총 08개 국내 투자 프로젝트, US 3.11억 달러 • 단계2(143ha) 인프라 투자 진행중 약 60ha의 산업 토지 임대 가능	Capela Real Estate JSC
8	Thai Ha	200	• 인프라 건설 투자 진행 중 • 2021년 말까지 인프라 건설 완료 예상	Hop Tien Company Limited



□ 투자 유망분야

- 산업 생산 분야의 프로젝트 : ICT 산업, 디지털, 나노 기술, 바이오,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 및 조립,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 신소재 지원산업
- 하이테크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 : 하이테크 농업 투자, 청정 채소, 뿌리작물, 과일, 첨단 쌀 재배. 산물, 식품, 음료, 우유 가공 및 보존, 청정 돼지, 젖소, 소를 사육 및 가공
- 다음 분야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 : 의료, 교육, 환경 보호, 관광 및 상업 서비스(지역: 남까오(Nam Cao) 대학, 고품질 의료 센터, 탐축(Tam Chuc) 국가 주요 관광 지역)

□ 하남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하남성 기획투자청	Mr. Dinh Ngoc Duy (투자협력 전문위원)	• Tel: +84-226-385-2701 • Email: Dinhngocduy@hanam.gov.vn Ngocduydinh20@gmail.com • Website: skhdt.hanam.gov.vn
하남성 공단 관리위원회	Mr. Do Thanh Luan (기획 실장)	• Tel: +84-226-385-7961 • Email: Dothanhluan@hanam.gov.vn LuanBQLkcn@gmail.com • Website: izhanam.gov.vn bqlckcn.hanam.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3.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3.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9,019	71,508.56	68	187.43	1,184.81
일 본	4,666	62,512.42	28	1,484.12	2,097.47
싱가포르	2,660	61,263.07	30	4,285.45	4,587.56
대 만	2,802	33,776.34	9	27.2	111.66
홍 콩	1,956	26,243.45	15	236.74	294
버진아일랜드(영)	871	22,262.35	6	58.75	124.02
중 국	3,170	19,540.08	37	548.93	963.12
말레이시아	645	12,937.93	1	0.01	11.21
태 국	607	12,677.32	3	32.13	125.91
네덜란드	372	10,367.05	2	80.7	98.33
미 국	1,088	9,569.53	7	148.4	174.42
전체 합계	33,294	393,325.49	234	7,222.68	10,070.8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1. 3.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3.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247	229,967.63	124	1,681.97	3,918.90
2	부동산경영	948	60,769.75	10	431.87	600.06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160	33,569.09	9	4,928.07	4,992.92
4	호텔, 외식서비스	890	12,519.16	1	0.22	36.22
5	건설	1,752	10,680.17	1	0.2	9.81
6	도소매,유지보수	5,225	8,531.22	42	22.13	73.18
7	물류운수	880	5,501.96	5	107.58	113.62
8	채광	108	4,897.63	-	-	1.08
9	교육, 양성	588	4,413.01	5	0.98	30.81
10	정보통신	2,341	3,985.53	15	2.7	21.66
11	농,임,수산	506	3,779.19	1	7.65	71.04
12	예술 오락	138	3,391.52	-	-	0.21
13	기술과학전문	3,554	3,774.90	17	39.06	167.13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926.02	-	-	11.39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0.84
16	행정, 지원 서비스	494	975.98	4	0.26	3.4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18.62
19	기타산업					
합계		33,294	393,325.49	234	7,222.68	10,070.8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8	2019	2020	2021.3
수 출	2,447.20	2,634.50	2,814.70	773.4
수 입	2,375.10	2,535.00	2,624.00	753.0
무역수지	72.1	99.5	191	20.4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14,076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7,184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11,965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9,100
신발류	16,297	18,299	16,551	4,738
수산물	8,831	8,572	8,384	1,687
목제품	8,855	10,526	12,323	3,699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2,666
철강제품	4,558	4,160	3,035	1,826
채소	3,822	3,764	3,259	944
기 타	67,951	71,337	76,793	19,459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77,344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3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16,788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10,81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4,857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2,891
철강제품	9,896	9,485	4,526	2,569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2,893
유류제품	7,614	1,047	1,056	287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2,226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1,919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741	5,886	5,316	1,442
기 타	86,801	98.96	100,175	28,622
합 계	236,687	253,070	262,407	75,308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22,235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12,594
3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5,174**
4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4,883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2,872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1,911
7	인 도	3,756	6,542	6,674	5,235	1,710
8	독 일	6,364	6,869	6,555	6,644	1,696
9	영 국	5,424	5,776	5,758	4,955	1,468
10	태 국	4,786	5,494	5,272	4,917	1,452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22,406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78,40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24,338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12,644**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5,207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4,996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3,723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3,157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2,125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1,649
9	인 도	3,940	4,147	4,538	4,435	1,582
10	싱가포르	5,301	4,524	4,091	3,670	1,040
	기 타	38,395	46,523	48,341	49,833	15,146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75,60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3
수 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12,764(6.3)
수 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5,836(11.1)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6,928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2,998(-7.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2,410(30.8)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800(-1.2)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559(-1.5)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240(-16.5)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525(28.7)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264(-14.2)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201(-2.5)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287(0.6)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211(-14.1)
기 타	18,808	15,874	16,187	14,998	4,269
합 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12,764(6.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1,365(-3.7)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845(4.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109(-55.6)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335(9.1)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186(20.0)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608(148.1)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136(11.9)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172(33.0)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134(-6.2)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134(29.8)
기 타	5,279	6,197	6,330	6,473	1,812
합 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5,836(11.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0년(연간)	%	△5.4	△9.5	△5.6	△2.1	2.9
		2021년 2월	%	0.2	N/A	N/A	N/A	4.48
		2021년 3월	%	0.2	N/A	N/A	N/A	4.48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N/A	N/A	109.8	147.1	3.4%
		2021년 2월	-	102.5	△5.1%	111.8	N/A	△7.2%
		2021년 3월	-	N/A	△21.1%	N/A	N/A	3.9%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0년(연간)	-	N/A	N/A	102.4	44.7	N/A
		2021년 2월	-	50.5	52.5	108.8	50.9	51.6
		2021년 3월	-	50.8	52.2	N/A	53.2	53.6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0년(연간)	-	N/A	N/A	79.5	93.6	N/A
		2021년 2월	-	101.0	N/A	N/A	85.8	N/A
		2021년 3월	-	101.2	N/A	N/A	93.4	N/A
	소매판매	2020년(연간)	-	N/A	N/A	131.0	197.5	2.6%
		2021년 2월	-	83.6	1.4%	138.5	177.1	8.2%
		2021년 3월	-	N/A	N/A	N/A	182.3	9.2%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0.5~0	N/A	△1.2	2.0	3.2
		2021년 2월	%	0.2	4.7	0.1	1.4	0.7
		2021년 3월	%	0.5	4.5	N/A	1.4	1.16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0년(연간)	%	△14.3	N/A	1.4	△5.0	△25
		2021년 2월	%	N/A	N/A	N/A	N/A	△15.6(누계)
		2021년 3월	%	N/A	N/A	N/A	N/A	18.5(누계)
고용	실업률	2020년(연간)	%	3.7	10.4	4.5	7.7*~9.2*	2.5
		2021년 2월	%	3.0	8.8	4.8	7.7*~9.2*	2.4
		2021년 3월	%	N/A	8.8	N/A	7.7*~9.2*	2.4
무역	수출증가율	2020년(연간)	%	△3.2	△10.1	△1.4	△2.2	6.5
		2021년 2월	%	△2.0	△2.3	17.6	8.6	△4.7
		2021년 3월	%	N/A	N/A	N/A	30.5	19.2
	수입증가율	2020년(연간)	%	△7.4	△23.3	△6.3	△16.9	3.6
		2021년 2월	%	△4.6	2.7	12.7	△14.9	10.5
		2021년 3월	%	N/A	N/A	N/A	△25.7	27.7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전망치는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i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5. 수입규제 대응 및 지원

아 요즘엔 왜 이렇게 복잡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거야
뭐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등 아 복잡해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기본 관세 이외의 장벽들을 쌓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 국제 무역 규약에 어긋나는 거 아냐?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수입규제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를 남용해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1

와 그럼 오히려 돈도 더 벌고 반덤핑 관세도 피해 가고 일석이조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차별화된 고수익 제품 위주로 생산을 전환해서 수익성도 제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고 많은 기업들이 수입규제에 대해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맞아요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런 대응 역량을 갖추면 좋죠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와 협상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음 든든하고만
3

아.. 우리 회사도 이런 일 당하면 타격이 클 텐데..
그래서 요즘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어떻게?

얼마 전에 XXX 국가에서 우리나라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ㅇㅇㅇ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후후...
덤핑

그런데 ㅇㅇㅇ 기업에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서 반덤핑 관세를 피해갈 수 있었대요
헉
뻘쭘
2

하지만 뭐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지

맞아 사실 나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어
네? 과장님도요?

그 보고서가 별로면 서류를 집어던지는 마부장님 있잖아
아.. 마부장님요..
더세 해와!!
4

5화

수입규제 대응지원 안내

수입규제란?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특정 국가가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다양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으며 이들은 국제 협정상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로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세 개가 조치가 합당하다고 교역 상대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 덤핑, 보조금, 그리고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전제로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는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규제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수입규제 대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내용을 소개합니다.

수입규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안내

❶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 지원내용 : 전문기관(법무·회계법인)과 기업을 연계하여 법률·회계 자문(국가별 조사절차, 덤핑률 계산 등), 피해 최소화 대응전략 등 자문 제공
-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antidumping.kita.net/)의 컨설팅 메뉴를 통해 신청
- 유선 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02-6000-8383)

❷ 기업 통상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지원내용 : 통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수입규제제도 설명, 기업리스크 진단, 질문서 분석·답변, 국가별 조사·재심절차 대응방법 등) 제공
- 신청방법 : 매년 하반기('20년도는 10월말~11월중)에 실시되며, 교육개최 전,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확인
- 유선 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02-6000-8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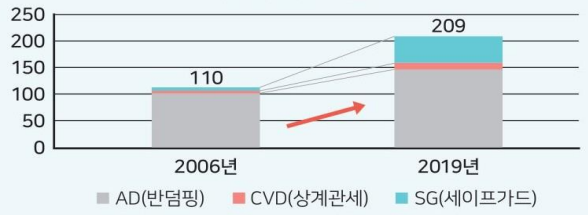
❸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 지원내용 : 정례적 또는 업계·협회 요청시 산업단지, 관련업계 단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주요 수입규제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 및 기업 애로사항 등 논의
- 신청방법 :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 확인
- 유선 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02-6000-8383)

Q 저희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아직 수입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없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대응이 필요할까요?

A 과거 수입규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시장규모가 크고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품목에까지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수입규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전에 수입규제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Q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이 수입규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은 총 세 부분의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과 기업 통상 담당자 교육,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입니다. 각각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좌측 프로그램안내참조)

하노이 시와 진출 한국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가칭)

- 행사 목적 : 하노이시의 각 부서별 책임자가 참여하여 하노이시 소재 한국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일시 : 2021. 5. 14. 금(잠정), 09:00-12:00
- 장소 : 하노이 소재 호텔 회의장 (추후 공지)
- 주관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공동주관
- 참석 규모 : 약 100여명 규모 [(한)70명/(베)30명]
- 방식 : 한국 기업 애로사항, 개선사항 발표 후 하노이시 담당자 답변 진행
- 문의처
  -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팀장
    (전화) 024 3946 0511(ext.164) / (이메일) kimkdon@kotra.or.kr

Meet Korea 2021 in Thanh Hoa Province

- 행사 성격 : 대사관, 한국기업 및 관련기관 그리고 타잉화성을 포함한 다수의 중부지역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한-베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행사
- 일시/장소 : 2021. 6. 11(금)-12(토) / FLC Sam Son Resort Thanh Hoa Province
- 주관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등
- 참석 대상 : 베트남 진출 기업 중 관심기업, 관련 공공기관 등
- 문의처
  -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조아라 대리
    (전화) 024 3946 0511(ext.531) / (이메일) joara@kotra.or.kr

중부지역 진출 비즈니스 포럼

ㅇ 행사명 : 중부지역 진출 비즈니스 포럼
ㅇ 일시/장소 : 2021. 6. 18(금), 09:00-17:00 / 다낭 소재 호텔(추후 공지)
ㅇ 주관 :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다낭 무역관
ㅇ 참석 규모 : 한베 투자 관계자 약 100명 내외
ㅇ 주요 내용
- 우리 기업 베트남 중부지역 투자 현황 및 투자 사례 발표
- 베트남 중부지역(트어티엔후에성, 다낭시, 꽝남성, 꽝응아이성) 투자환경 소개
- 네트워킹 오찬
- 1:1 비즈니스 상담 (프로젝트, 일반수출, 투자진출 등)
ㅇ 문의처
- (포럼 및 오찬) 주다낭총영사관 (+84) 0236-356-6100, danang@mofa.go.kr
- (상담회) 코트라 다낭무역관 (+84) 0236-377-9700, danang@kotra.or.kr

※ 참가 방법 : 5.16(일) 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신청 (링크)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 개최

1. 노동현안 관련 한국기업과 고용노동 대화(하노이)

ㅇ 목적 : 베트남 노동부 차관 등 관계자를 초청해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 개정 노동법, 노동허가 이슈 등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한국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답변 기회를 마련

ㅇ 일시/장소 : 2021. 5. 10.(월) 오후, 그랜드플라자 호텔 2층 밀레니엄홀

ㅇ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 KOTRA

ㅇ 후원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노동보훈사회부(MOLISA)

ㅇ 참석대상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대표·법인장 및 임직원 등 300명 내외

ㅇ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사	김한용 코참 회장
14:05~14:10	인사말씀	박노완 주베트남대사
14:10~14:30	2021년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	베트남 MOLISA 차관
14:30~15:00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베 MOLISA 법제국 발표
15:00~15:15	베트남 고용서비스포털 안내	베 MOLISA 고용국 발표
15:15~15:35	시행령152호 및 노동허가 이슈	베 MOLISA 고용국 발표
15:35~15:50	휴 식	
15:50~17:00	Q&A 및 폐회	참석자

ㅇ 참가신청 및 문의

- 문의: 하노이코참(024-3555-3341)
- 참가신청: https://bitly.com.vn/jk17kr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 개최

2. 노동현안 관련 한국기업과 고용노동 대화(하이퐁)

ㅇ 목적

- 하이퐁 노동국 관계자와 하이퐁 소재 한국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마련
- 베트남 고위관계자를 초청해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 개정 노동법, 노동허가 이슈 등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한국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답변 기회를 마련

ㅇ 일시/장소 : 2021년 5월 17일(월) 11:00~17:00, 추후공고

ㅇ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 KOTRA

ㅇ 후원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노동보훈사회부(MOLISA)

ㅇ 참석대상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대표·법인장 및 임직원 등 100명 내외

ㅇ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1:00~12:00	진출기업-하이퐁시 고용노동 대화	하이퐁시 노동국, 한국기업 등 우리측(20명)
12:00~13:30	네트워킹 오찬	하이퐁시 노동국, 베 MOLISA, 우리측(20명)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사	코참 고위관계자
14:05~14:10	인사말씀	대사관 고위관계자
14:10~14:30	2021년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	베 MOLISA 고위관계자
14:30~15:00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베 MOLISA 법제국 발표
15:00~15:15	베트남 고용서비스포털 안내	베 MOLISA 고용국 발표
15:15~15:35	시행령152호 및 노동허가 이슈	베 MOLISA 고용국 발표
15:35~15:50	휴 식	
15:50~17:00	Q&A 및 폐회	참석자

ㅇ 참가신청 및 문의

- 문의: 하노이코참(024-3555-3341)
- 참가신청 : https://bitly.com.vn/5jmhqa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 개최

3. 노동현안 관련 한국기업과 고용노동 대화(호치민)

- 목적 : 베트남 노동부 차관 등 관계자를 초청해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 개정 노동법, 노동허가 이슈 등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한국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답변 기회를 마련
- 일시/장소 :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롯데호텔 사이공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 무역협회
- 후원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호치민총영사관, 노동보훈사회부(MOLISA)
- 참석대상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대표·법인장 및 임직원 등 150명 내외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8:30~9:00	등록	
9:00~9:05	개회사	손영일 코참 회장
9:05~9:10	인사말씀	강명일 총영사
9:10~9:30	2021년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	베트남 MOLISA 차관
9:30~10:00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베 MOLISA 법제국 발표
10:00~10:15	베트남 고용서비스포털 안내	베 MOLISA 고용국 발표
10:15~10:35	시행령152호 및 노동허가 이슈	베 MOLISA 고용국 발표
10:35~10:50	휴 식	
10:50~12:00	Q&A 및 폐회	참석자

- 참가신청 및 문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xiAQSuZ84wnqwkYrxlKtH2yCd6ylsY3M3La0I5jK_rHYR-A/viewform?usp=sf_link

주요기관별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현황(4.22.기준)

<주베트남대사관·주호치민총영사관·주다낭총영사관, '21.4.23>

1 국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 (문의) 이메일: btsc@kita.net, 대표전화: 1566-8110, 홈페이지: www.btsc.or.kr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 베트남은 5.13(목), 5.28(금) 및 6.15(화) 입국예정이며, 격주단위 지속추진 중

2 베트남

* 주요 교민단체별 단체입국 현황이며, 각 여행사를 통한 개별입국은 제외

□ 하노이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하노이코참	5.21(금)→ 5.6(목)까지 6.9(수) → 5.25(화)까지 6.25(금) → 6.9(수)까지 * 추후변동가능하며,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support@korchamvietnam.com 대표전화: 024-3555-3341	www.korchamvietnam.com 코참회원사 대상(원칙)
하노이한인회	5월 추진여부 미정 * 매월 지속추진 예정	이메일 koreahn2021@gmail.com 카톡 http://pf.kakao.com/_pHqRK 신청: http://naver.me/xFpjQ4D9	http://homepy.korean.net/~vietnamhanoi/www/
하노이 중소기업연합	5.18(화) → 4.28(수)까지 6.2(수) → 5.13(목)까지 6.17(목) → 5.28(금)까지 * 격주단위 지속추진	이메일: info@kbizhanoi.com 대표전화: (한국) 070-5111-2872 카톡ID: kbizhanoi1, kbizhanoi2, kbizhanoi3	www.kbizvietnam.org

□ 호치민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호치민한인회	6.2(수) → 4.30(금)까지 6.18(금) → 5.14(금)까지 7.4(일) → 5.28(금)까지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hchiminh@korean.net 대표전화 : 028-3920-1610 카톡ID : hcmhanin	www.koreanhcm.org

□ 다낭: '21년 6월~7월경 추진검토(다낭한인회, 추후 공고)

kotra
VIETNAM BUSINESS NEWS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5월
2021년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